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글로벌 채권·통화 투자 '글로벌본드펀드' 출시

신한BNPP자산운용은 10월 23일 글로벌 채권과 통화 포지션을 활용한 헤지펀드 스타일의 채권 펀드인 '신한BNPP H2O 글로벌본드펀드'를 출시했다.

이 펀드는 글로벌 채권 펀드 전문 운용사인 H2O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H2O Multi Aggregate펀드'를 피투자대상으로 하는 재간접펀드다. H2O자산운용은 프랑스의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나틱시스자산운용의 자회사로, 2010년 아문디자산운용(옛 크레딧아그리콜운용) 채권운용 본부 대표매니저가 독립해 설립한 전문 운용사다.

국내에서는 이미 사모펀드에 기관투자자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이번 상품이 첫 번째 공모펀드다.

이 펀드는 선진국 국채, 회사채, 이머징 국채, 유동화 증권 등 다양한 채권 관련 자산, 그리고 이들 자산의 대상 통화를 비롯한 글로벌 통화에 투자한다. 시장 방향성과 지역 및 국가, 신용 등급, 만기별 상대 가치 분석을 통해 매수, 매도 전략을 병행한다.

공모펀드 성격에 맞게 안정적인 수익 실현과 리스크 통제를 위해 변동성을 연간 3~6% 수준으로 운용한다.

또 월간운용보고서에 주요 투자전략별 포지션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금리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미국 단기채에 대해서는 매도포지션을, 10년 이상 장기채에 대해서는 매수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금리 매력도가 높은 유럽 개별 국가나 회사채에 대해서는 매수포지션을 취하면서 개별 국가, 대상 채권의 비중 조절을 통해 금리 상승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통화 투자전략은 크게 5개의 주요 통화 그룹으로 나뉜다. 미국 달러에 대해서는 매수포지션, 상대적인 약세를 보이는 이머징 통화에 대해서는 매도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이 외에 유럽 통화 그룹, 캐나다 달러 그룹, 일본 엔화 그룹에 대해 시장 환경을 종합해 투자 비중과 매수/매도 포지션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전략을 통해 설정 이후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달러 기준으로 설정 시점인 2016년 9.3%, 2017년 9.6%,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4.7%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해외채권운용팀 탁하진 팀장은 "시장 리스크 고조와 금리상승으로 글로벌 채권지수의 연초 이후 성과가 9월 말 기준으로 0.02%에 불과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신한BNPP H2O 글로벌본드 펀드는 통제된 변동성 조건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요즘과 같이 시장 환경이 불안정하고 금리도 지속해서 상승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마땅한 투자 대안이 없는 공모펀드 시장에서 유효한 투자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펀드는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신한BNPP파리바자산운용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다양한 자산에, 다양한 전략으로! 헤지펀드 스타일의 **글로벌 채권형 펀드**에 투자합니다



신한 BNPP H2O 글로벌본드
증권투자신탁(H)[채권혼합-파생재간접형]